

“스터디 그룹 같이 하실래요?”

이민지*

지난 학기 ‘기독교개론’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을 때 사실 나는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그룹 스터디? 그것도 그냥 우리들끼리 하고 마는 스터디가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룹 스터디라고 했다. 전공 수업은 같이 몇 번 들어서 얼굴은 익혔지만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권유. 괜히 같이 만나서 서로 어색할 것도 같았지만 그룹 스터디 자체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수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약간의 고민을 뒤로 하고 같이 해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원해준다는 도서상품권에 현혹된 게 사실. 그리하여 결성된 스터디 그룹이 바로 ‘관악불패’(冠岳不敗)였다. 총 구성원은 6명으로 전공도 다양하고 졸업생으로서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종교학과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수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조장께서 서로의 이름을 적어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수업시간에 전해주었다.

드디어 ‘관악불패’ 조원이 된 우리들은 수요일마다 ‘기독교개론’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 남아 두세 시간씩 스터디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모임 장소를 원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해줬지만 조원 모두들 수업이 늦게 끝나서 안타깝게도 그 장소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인문

교육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02학번, 우수스터디 그룹 ‘관악불패’ 조원

과학대학 7동에 있는 라운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룹 스터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스터디 형식은 밸제 중심으로 하기로 했고, 텍스트는 수업시간에 수업 교재로 쓰는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란 책을 쓰기로 했다.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두 명의 밸제자가 책의 한 장(章)씩 맡아 내용을 요약하고 책에 제시된 연습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정했다. 사실 수업 교재가 영어로 된 원서였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 같았는데 잘된 일 이었다. 그룹에서 각자가 맡은 부분을 밸제한다면 공부할 시간을 절감하고 또 서로의 도움으로 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룹 스터디를 하고 나면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매회 해당 밸제자가 올리는 것으로 정했고, 담당교수님과의 면담도 두 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룹 스터디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였고 드디어 ‘관악불패’의 첫모임이 시작되었다.

우리 조원들이 처음에 만나서 그룹 스터디를 했던 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서로 좀 어색했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다. 학부제 실시 이후 선후배와 동기간의 연결이 끊어져서 사실 같은 전공이라도 뚝 터놓고 대화를 해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수업시간에 얼굴



만 알고 지낸 터라 더 어색했을지도 모르겠다. 첫 스터디 모임에서는 서로 간에 어색해서인지 빨개 시간도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고 가끔 침묵의 순간들이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점점 더 친해졌다. 우리가 친해졌다고 깨달은 것은 스터디 모임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서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조용하고 썰렁했던 시간이 빨개에 대해서 자유롭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물론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같이 밥을 먹거나 외국 교수 초청강연회도 함께 참석할 정도로 점점 조원들의 친분은 쌓여갔다.

스터디 모임 중에는 ‘기독교개론’ 수업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의문, 비판적 혹은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면서 수업시간 중에 다하지 못했던 말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수업시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나 자신의 의문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다. 나 자신의 시야는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야에 대해 물어보고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시야도 좀더 넓어지는 느낌. 단순히 학점을 받는 데에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나에게 그룹 스터디는 예상치 못하게도 상당히 신선하고도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는 물론이고 스터디 모임 덕분에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후반에는 수업 진도를 앞지르면서 그룹 스터디를 통해 예습이 가능해졌고, 예습 중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줄 수 있었다. 스터디 모임 중에 한번 다뤘던 내용을 수업시간에 다시 교수님을 통해 더 정확히 배울 수 있었던 점도 수업 내용을 더욱 알차게 했다. 수업시간에 과제로 제시된 교재의 연습문제도 빨개자가 우선 풀어오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기말고사의 경우 교수님께서는 많은 문제들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각자 문제들을 서로 나누어 답을 찾아서 예상 답안지를 완성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서로가 풀어온 답 중에서 틀린 답이나 모르는 답

을 서로 토론해서 찾음으로써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수업에 참가한 네 명의 학생 수업 성적이 평균 A라는 평가를 이뤄냈다. 또 대학원을 준비하던 조원 한 명도 스터디 모임 중에 종교학과 대학원에 당당하게 진학하여 조원 모두가 축하해줬다. 우리는 그 조원의 대학원 합격이 (물론 본인의 노력이 우선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룹 스터디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에 걸친 교수님과의 면담도 성공적이었다. 사실 지도교수님과의 교류가 힘든 실정에서 혼자서 교수님께 찾아가 수업시간 중에 궁금했던 점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하지만 교수님께 여럿이서 물려가 세미나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다 고 말씀드리고(교수님께서도 이미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셨다) 면담을 요청 드리니 그러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룹 스터디를 하는 동안 한번은 종교학과 세미나실에서, 또 한번은 자하연 3층 교수식당에서 교수님과의 면담을 가졌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수업시간에 나왔던 내용과 한국 기독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교수님과 자유롭게 토론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종교학과에 대해, 또 종교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진로에 대해 교수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런 두 번의 기회로 교수님께서 조원들을 많이 신경써주셨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다.

아마도 우리 스터디 모임 ‘관악불쾌’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조원 모두가 성실하게 참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 스터디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했기 때문에 친해질 수도 있었고, 한번 모일 때마다 토론이 더욱 깊어지고 또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서로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보고서도 밀리지 않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는 게시판에 제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제출 이후 이번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터디 그룹들이 모두 모여 그룹 스터디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조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수 그룹으로 뽑혀 1GB 메모리스틱까지 상품으로 받았다. 이렇게 ‘관악불쾌’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구성원

모두가 성실히 그룹 스터디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던 조원으로서 이런 식의 학습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또 여럿이 모여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처럼 스터디 그룹을 신청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문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스터디 그룹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많은 열려진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대학생활에서 잊지 않을 추억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스터디 그룹 같이 하실래요?” 